

高3 교실서 화투 도박 시비 주먹질 학생 숨져

광주 모 고교, 수능발표 날 교사 자리 빈 틈 사고

수능 발표 후 교실에서 속칭 '쌈다' 화투놀이를 하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친구가 휘두른 주먹에 맞아 숨졌다.

지난 7일 낮 12시께 광주 모 고등학교 2층 3학년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한 사람당 100원씩을 거는 '쌈다' 화투 도박을 하던 이모(19)·조모(19) 군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이군이 도박 중 다른 반 학생인 조군의 턱을 '북북'치자, 불쾌감을 느낀 조군이 주먹으로 이군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이군은 구토증세와 구

강 내 출혈을 보여 119구급대에 의해 조산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하루 뒤인 8일 오후 1시께 뇌출혈로 끝내 숨을 거뒀다. 숨진 이군은 수능을 본 후 전문대에 진학할 예정이었다.

이군 등 4명은 수능성적 발표날인 이날 수업 중이던 송모(50)교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화투놀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학교 학생들은 평소에도 교사들의 눈을 피해 쉬는 시간을 이용해 '쌈다' 도박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장 실습생과 취업생이 많은 학교 특성상 수능 이후엔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담당 교사 송씨는 "교실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나 수능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교무실에 다녀왔는데, 그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광주 남부경찰은 9일 조군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숨진 이군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르포 칠산 앞바다 어민들 태안 기름띠 확산 긴장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한 태안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신안군 지도읍 송도항으로 귀항한 새우잡이 어선들. 어민들은 태안 앞바다에서 유출된 기름이 조류를 타고 칠산바다로 밀려들면 김·미역 등 양식장과 조기 등 황금어장이 수년 동안 황폐화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신안=워치라기자 jwji@kwangju.co.kr

“며칠 후면 밀려온다는데... 입술이 바짝바짝 탐니다”

사고 해역 새우잡이 전방 어선 35척 피항

충남 태안 만리포 해상에서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난 9일, 신안 지도읍 송도 항과 영광 법성포 항은 폭풍 전야와도 같은 긴장감이 팽팽했다. 어민들은 “15년만의 새우 풍어(豊漁)로 돈 좀 만질 수 있겠다고 기대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냐?”라며 “기름띠가 며칠 후면 밀려온다는데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오로 새우 풍어 소식을 듣고 충남 태안 앞바다까지 나가 조업을 왔던 어선 한 척당 하루 평균 어획량은 150~200상자(한 상자당 5kg·2만5천원선)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100상자에 비해 50% 정도 늘었다. 송도 위관장 위관량도 하루 평균 7천 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천 상자에 비해 14.3%나 증가했다.

이날 오전 10시 신안군 지도읍 송도항. 사고가 난 만리포 해상 인근에서 새우잡이를 하다 귀항(歸港)한 어민들은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사고 해역 인근까지 가서 새우잡이를 하고 있는 신안·목포·영광 어선은 35척. 지난 해까지 신안·진도 앞바다에서 새우잡이를 하던 이들은 올해 처음

근해저망 13t급 '대청호' 선장 김주현(42·신안군 지도읍)씨는 “올해는 새우 품질도 좋고 어획량이 많아 짝잡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기름띠가 조류를 타고 내려오면 올해 새우잡이는 끝장”이라며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갈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임자면 전장포·제원도·증도 등 칠산바다에서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 만리포에서 170km 떨어진 이곳은 전남 서남해안 중에서 사고해역과 가장 가깝다. 기름띠가 해상에서 하루 평균 10km씩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름 후엔 이곳 300여 곳의 김·굴·바지락·새우 양식장을 덮칠 수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기름을 빨아들일 수 있는 가로·세로·높이 2m인 '기름제거 장비'(Oil-Skimmer)를 실은 경비정과 해상 오염방제전문선박 등 6척을 현장에 보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해해경청은 또 경비정 1대를 동원, 영광 안마도 인근 해상을 돌며 기름띠 출현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요양병원 실종 80대 병원 근처서 숨진 채 발견

9일 오전 9시40분께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고추밭에 박모(88·광주시 남구 방림동)씨가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발주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지난 4일 이 마을에 있는 H 병원에 입원했으나 지난 7일 오전 6

시계 사라졌었다. 치매 병동은 환자 관리를 위해 출입구가 간호실을 경유하게 돼 있지만 박씨는 병실 안에 설치된 1m 높이의 창문을 열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직원 등 20여 명을 동원, 인근 지역을 수색했으나 병원에서 북과 100m 떨어진 곳에 있던 박씨를 찾지 못하는 등 수색작업에 허점을 드러냈다. 경찰은 박씨가 집에 가려나 길을 잃어 추위에 얼어 죽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병원의 환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장성=고재민기자 jbg@

시립국악단 채용비리 수사 확대

북부경찰, 시청 홈페이지 게재 지시 단원 소환

광주 북부경찰은 9일 친·인척에게 예술단원 채용비리 의혹의 글을 광주시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지시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이모(여·40)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단원 채용비리 의혹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며 “현 단장의 재계약이 이번 달에 있을 예정인데 비리문제를 공개, 재계약을 막기 위해 글을 올리

도록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현 국악관현악단장 이모(46)씨가 취임한 지난 2004년 이후 신규 채용된 단원 17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금품 제공 여부 등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단원 이씨는 자신의 동생(34)과 조카(19)에게 ‘시립국악관현악단에 들어가려면 1천만~2천만원의 돈을 쥐어준다’는 글을 지난달 4일과 24일에 시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다. 이씨는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금품 수수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정인과 관련한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모 단장은 “금품 수수 의혹은 재일증을 반대하는 일부 세력의 음해”라고 주장하고 “앞으로 진행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총기탈취 용의자는 AB형

특전사 병력 600여 명 투입 수색

강화도 총기 탈취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수사본부는 고(故) 박영철(광주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상병의 귀마개에 묻어 있던 혈흔을 감식한 결과 용의자 혈액형이 AB형인 것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사본부는 용의자가 부대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박 상병 소속 부대 전역자 1만 321명 중 AB형 전역자에 대해 우선

적으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용의자가 범행에 사용하게 위해 코란도 승용차를 탈취했던 경기도 이천시 J중고차매매센터 종업원으로부터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말투에 대한 진술도 확보했다. 이 종업원은 경찰 조사에서 “용의자는 30대 중반에 키 170~175cm로 표준말을 썼지만, 어눌한 점이 기억에 남는다”면서 “또 검은색 가죽 병

거지 모자를 쓰고 가죽점퍼를 입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 후 평택~안성 간 고속도로 청북요금소로 빠져나와 서해안고속도로 발안 톨게이트 인근 도로를 거쳐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점리에서 차를 불태운 행적을 확인하고 인근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분석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기지국 통화자료 8만여 건을 분석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도 용의자 검거 및 수색작업에 특전사 병력 600여 명을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 투입해 정밀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전사 병력 투입은 지난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래 처음이다. /연합스

나원침 (7379) 김중두



다들 물어봐... 신안재난 KCC

DS건설(주) KCC건설, 연수, 도림, 대림

KCC방호, 시스템방호 생산·시공

(주)본드나리 KCC건설, 연수, 도림, 대림

실리온·방수재·합작재·타이브

도박 단속 도망가다 장독대 '외장침'

○도박 혐의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놀라 달아나다 이웃집 장독대를 깨트렸다.

○9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10분께 광주시 화정동 단독주택 2층에 모여있던 남녀 20여 명 중 일부가 경찰이 현장에 급습하자 2층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아래에 있던 이모(72)씨의 장독 4개를 밟아 파손했다는 것.

○도둑이 들어온 지 알고 새벽잠을 설친 이씨는 이날 아침 깨진 장독과 날려있는 화투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경찰에 붙들려 조사를 받은 여자 10명과 남자 4명은 “계 모임 때문에 이날 모임 것이며 도박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는데,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똑같이 일치하는데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모두 훈방.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산학맞춤형 교육연구센터」 준공식

광주광역시 북구 오성동(합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장기기술인력교육센터 사업내용

- 산학맞춤형 교육·훈련기·인력양성교육
- 대학·기업·교육·연구기관·정부·교육·연구기관
- 교육·연구·개발·인력양성·교육·연구기관
- 교육·연구·개발·인력양성·교육·연구기관

개최일시 : 2007년 12월 12일(수) 13:30~

개최소 : 광주광역시 북구 오성동(합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